

Morning Meeting Brief

Fixed Income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 잠시 쉬어가는 동결

- 4월 금통위 기준금리 2.75%로 그대로 동결 환율 불안 금융안정 등 겨냥
- 그러나 높은 경기 하방 위험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
- 5월 기준금리 2.50%로 인하 전망 낮은 금리 레벨로 조정 시 매수 권고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Global Strategy

[더 글로벌 레이다 Weekly / 4월 4주차 전략] 트럼프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중국

-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여타국처럼 중국이 먼저 협상에 나서주는 것
- 중국, 장기간 지속된 대중 제재 피해를 무력화하고 다양한 수단(우회 수출입 등) 통해 회피
- 미국의 대중 규제는 중국 자립도 강화, 미국인 후생 감소로 연결. 상호관세 유예기간 전 막판 타협 예상. 증시 변동성 요인으로 의미 제한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Strategy

[다음주 시장은?] 관세 협상 진행 중 & 1Q 실적시즌

- 관세 협상과정에서 선반영된 관세정책/미국 경기 침체 실체 확인
- 실적시즌 시작, 미국 및 한국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결과 주목
- 경기침체 & 최악의 관세 선반영한 밸류에이션, 투자심리 회복 = 상승 추세 재개

이경민. kyungmin.lee@daishin.com

Commodity

비트코인이 유동성 반영할 때 쉬어갈 수밖에 없는 금

- 미국채에서 이탈한 안전자산 수요, 금 가격을 사상 최고치로 만든 원동력
- 다만, 신뢰성 문제 진압한 연준, 조기 금리 인하가 아니라면 기대감 툭-다운
- 특히, 경쟁자 비트코인이 유동성 효과 누릴 구간에서 금은 쉬어갈 수밖에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Macro

[을지로 지표맞집] 바쁘다 바빠 패권 경쟁 사회

- 미중 갈등은 좀처럼 완화되지 않는 가운데, 파월의장은 신중한 스탠스 유지하며 미국자산 투자심리 반등 제한적
- 미일 첫 관세 협의 이후 다음 주 한국과 협의 예정, 양국 간 균형 맞출 수 있을지가 국내자산 투자심리에 영향 줄 것으로 예상
- 한편 주요국 S&P PMI 발표 예정, 관세 앞둔 선수요 남아있을 가능성, 그러나 앞으로 수요에 대한 기대가 어떤지가 중요한 시점

이주원. joowon.lee2@daishin.com

[1Q25 Preview] LG 이노텍: 저평가 심화 속에 신성장(FC BGA) 확대 추진

- 밸류에이션 저평가 심화,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중 확대
- 2025년 1Q 매출(4.55조원)과 영업이익(1,239억원)은 컨센서스 상회 예상
- 신성장인 FC BGA 매출 확대의 첫 해, 유리기판 사업은 적극적 추진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Fixed Income

Economist &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 잠시 쉬어가는 동결

- 4월 금통위 기준금리 2.75%로 그대로 동결. 환율 불안, 금융안정 등 겨냥
- 그러나 높은 경기 하방 위험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
- 5월 기준금리 2.50%로 인하 전망. 낮은 금리 레벨로 조정 시 매수 권고

25년 4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2.75%로 동결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최근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원/달러 환율, 3월 빠르게 늘어난 가계대출 및 금융 불안 등에 대한 통화당국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美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로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 내수 위축 등으로 인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이뤄진 현안 대응 차원의 성격이 더욱 커 보인다.

한편 이번 금리 결정은 인하를 주장한 1인(신성환 위원)의 소수의견으로 인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이번에 동결했지만 추가 금리 인하는 확실히. 더 높아진 성장의 하방 리스크

4월 금통위를 앞두고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앞선 금리 결정이 있었던 2월 금통위에서 이미 기준금리가 2%대로 낮아진 바 있고, 3월 가계대출 급증 등의 문제가 불거진 만큼 그간 한은이 취해왔던 징검다리식 행보에 대한 기대가 강했다.

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고수하겠지만 연속적인 인하를 통해 정책 여력을 일거에 소진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 당국의 행동 양식이 그대로 확인된 것이다. 오히려 금융시장에서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단서를 통화당국의 성장률 전망 수치 등에서 찾으려고 했다.

이에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 물가, 가계부채, 환율 등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통화당국은 지난 2월에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5%를 하회할 것을 예상하는 한편 향후 무역협상의 전개 양상, 추경의 시기 및 규모 등과 관련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반면 올해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인 1.9%, 1.8%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시사와 기존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물가 전망의 제시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경기나 물가 여건에 진단 뿐만 아니라 통화 당국자들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거듭 확인됐다.

실제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소위 K-점도표로 불리는 금통위원들의 향후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전망에서 6명의 위원 전원 3개월 이후 현 수준보다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Global Strategy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ng.moon@daishin.com

트럼프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중국

-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여타국처럼 중국이 먼저 협상에 나서주는 것
- 중국, 장기간 지속된 대중 제재 피해를 무력화하고 다양한 수단 통해 회피
- 중국 자립도 강화, 미국인 후생 감소 감안 시, 유예기간 전 막판 타협 예상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여타국에 상호관세 적용을 90일 유예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고율관세(145%)를 시행 중이다. 중국도 대미 관세율을 125%까지 높이고 기업 제재(미국 군수기업 6곳 추가, 12개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를 추가 하면서 보복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양국 간 무역갈등 해결을 위해 중국이 먼저 협상에 나서주길 원하지만, 타협 시도에 나서는 여타국과는 달리 현재 중국은 미국에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 중이다. 이는 美 농산물 수입 중단, 수출보조금 증액, 미국채 매도 등 대미 제재수단이 충분해 대미 관세 충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대규모 무역제재 시행, 22년 첨단산업 제재 등 대중 제재가 장기간 지속됐다. 중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제3국 우회 수출 확대와 공급망 진출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을 통해 첨단 반도체, 엔비디아 최신 칩이 장착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장기 임대하는 등 우회 수입을 통해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피해를 무력화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회피해왔다.

미국의 대중 규제는 중국의 자체적 발전을 유도하며 양자, AI 등 차세대 산업에서 중국의 자립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대중 규제가 강화될수록 중국 매출이 높은 엔비디아, 램리서치 등 첨단 기업과 테슬라, 애플 등 일반기업의 불만과 미국인의 후생 감소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앞두고 막판 중국과의 타협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으로 현 G2 간 갈등 구도는 증시가 반등에 나서는 과정에서 변동성 요인일 뿐이다. 글로벌 증시는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

표 1. 다음 주 중요 경제지표 및 이벤트(25.4.21~4.27)

경제지표 & 이벤트명	국가	일정	전기치	예상치	방향성	내용 및 시사점
4월 LPR(1년, 5년)	중국	4.21	3.1 / 3.6 %	3.1 / 3.6 %	- / -	1/4분기 GDP 5.4%(YoY) 성장, 예상치 상회해 LPR 인하 신중 입장
베이지북	미국	4.24				미 경제 활동에 대한 낙관적 평가, 다만 정책 불확실성 경고 담을 전망
1/4분기 GDP	한국	4.24	0.1 / 1.2	0.1 / 0.0	- / ▼	한국 경기 하방 리스크를 확인. 경기부양책 요구 목소리 높이는 계기

일자	국가/지역	주요 지표	기간	단위	전기치	예상치	대비
4.21	중국	LPR(1년, 5년)	4월	%	3.1, 3.6	3.1 / 3.6	- / -
4.23	미국	제조업 / 서비스업PMI	4월	%	50.2 / 54.4	49.3 / 53.0	▼ / ▼
4.24	미국	베이지북					
	한국	GDP	1/4분기	% QoQ, % YoY	0.1 / 1.2	0.1 / 0.0	- / ▼
	미국	내구재주문 / 근원	3월	% MoM	1.0 / 0.7	1.5 / 0.3	▲ / ▼

기준일: 25.4.17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관세 협상 진행 중 & 1Q 실적시즌

- 관세 협상과정에서 선반영된 관세정책/미국 경기 침체 실제 확인
- 실적시즌 시작, 미국 및 한국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결과 주목
- 경기침체 & 최악의 관세 선반영한 밸류에이션, 투자심리 회복 = 상승 추세 재개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은 90일 유예 이후 협상단계에 돌입. 전자기기/자동차부품 관세 완화, 반도체/의약품은 관세가 아닌 규제 도입으로 트럼프의 최대 압박 수위는 확인되었다는 판단. 일본을 시작으로 협상 과정에서의 기대감 반영되며 증시는 공포 구간에서 안도 국면으로 전환

관세에서 트럼프 뜻이 나온 반면, "연준 풋" 기대감은 파월의 매파적 발언과 함께 실망감으로 변화하며 투자심리 회복 지연. 그러나 관세와 교역 갈등이 경제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악영향은 전일 엔비디아 발 반도체 규제에서 상당부분 선반영. 코스피는 파월의 매파적 발언에도 추가 하락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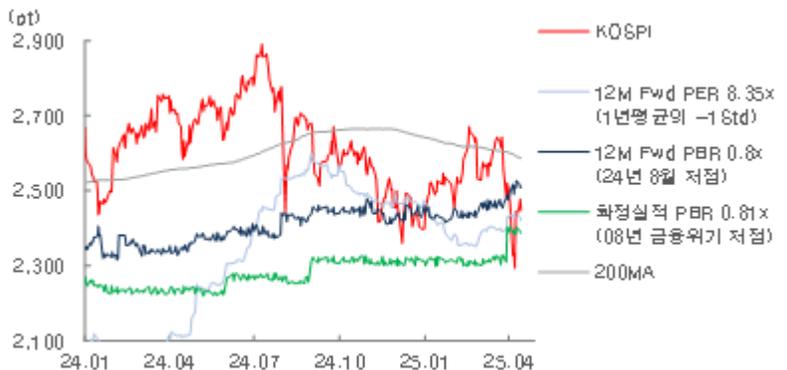
관세 협상 우선순위에 한국도 포함. 이번주 일본에 이어 다음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여 협상에 나설 예정. 관세 완화 기대와 함께 주요 의제로 방위비 분담, LNG/조선업 투자 등 예상. 관련 업종 이슈에 시장 이목이 쏠린 만큼 실제 협상 결과와 주가 선반영에 따른 등락 유의. 미-중 협상 성사여부 또한 관련. 트럼프와 시진핑 모두 대화 용의는 밝히고 있으나 양국 간 기싸움이 이어지며 기약이 없는 상황.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양국 간 교역 긴장감이 협상 기대감으로 전환 가능

산업/품목별 대중국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미국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결과 주목. 22일 테슬라와 24일 아마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인텔 등 실적 발표 예정. 증시 급락 과정에서 대중국 규제, 수출 제한, 관세 충격은 일정부분 선반영 되었다고 판단, 해당 기업들의 실적과 가이던스에 따라 국내외 밸류 체인 포함되어있는 기업들의 주가와 증시 전반 투자심리에 영향 예상

국내 기업들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 돌입. 21일 LS ELECTRIC, 22일 HD현대일렉트릭, 23일은 삼성바이오로직스, LG이노텍, 24일 SK하이닉스, 현대차, HD현대중공업, KB금융, 삼성SDI, LG디스플레이, 한화솔루션, 금요일 기아, 신한지주 등 실적발표 예정. 각 업종/산업 대표주들의 실적 결과에 따른 등락 예상. 최근 조정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보한 업종들은 반등시도에 나설 것. 다만, 가격/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종목은 차익실현 빌미가 될 수 있음을 경계

관세이슈 최악을 지나 완화국면 진입 예상, 실적, 펀더멘탈 동력에 대한 우려/경계까지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KOSPI 12개월 선행 PER은 8.5배, 선행 PBR은 0.79배로 24년 8월 저점이자 지지선인 0.8배선 하회. 2,400대에서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는 비중 확대 기회.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이자, 낙폭과대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제약/바이오 업종 중심의 매집전략 유효

KOSPI P/B 0.8 배 = 경기침체 & 최악의 관세정책 선반영한 밸류에이션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비트코인이 유동성 반영할 때 쉬어갈 수밖에 없는 금

- 미국채에서 이탈한 안전자산 수요, 금 가격을 사상 최고치로 만든 원동력
- 다만, 신뢰성 문제 진압한 연준, 조기 금리 인하도 없다면 기대감 툭-다운
- 특히, 경쟁자 비트코인이 유동성 효과 누릴 구간에서 금은 쉬어갈 수밖에

미국채에서 이탈한 안전자산 수요, 금 가격의 추가 상승 만든 원동력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편적 + 상호 관세 발표로 조정(선수요 종료) 받던 금 가격은 다시 상승을 재개하며 온스당 3,300달러선을 돌파했다. 실질 가격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상 최고치이다. 이처럼 4월 가격 상승폭이 커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비약적으로 확대된 안전자산 수요가 있다. 바로 미국채에서 이탈한 안전자산 수요이다.

금과 마찬가지로 미국채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다. 하지만 4월 이후의 금리와 달러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상식 밖의 상황이 연출된 것을 알 수 있다. FT 측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미국채 매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 보도했는데 에드 아데니는 이를 두고 채권 자경단이 움직인 결과라 설명했다. 레이 달리오의 주장처럼 미국채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금으로의 자금 이탈을 야기한 것이다.

다만, 신뢰성 문제 진압한 연준, 조기 정책금리 인하 없다면 기대감 툭-다운

다만, 이 같은 상승 속도가 상반기 말까지 계속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콜린스 지방연은 총재는 시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시 여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며 미국채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불식시켰지만, 당장 정책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16일, 파월 연준 의장 역시 달러 스와프 라인을 근거로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지키겠다는 뜻을 전달하면서도 정책금리 인하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고관세와의 이중채무 충돌 위험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채의 신뢰성 문제가 진정되는 과정에서 연준의 조기 개입 가능성 후퇴는 금 가격에 우호적이라 할 수 없다.

경쟁자 비트코인이 부활하게 될 구간, 금 가격은 잠시 쉬어갈 구간

특히, 경쟁자 비트코인이 상승을 재개하는 구간에서 금 가격은 상승 속도 둔화가 불가피하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 지수를 후행한다. 모두가 연준만 바라본 사이 중국 PBOC가 유동성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 8일 PBOC 측은 CIC에 재대출까지 제공하며 증시 부양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중국 CICC는 당국에서 2/4분기 관세발 악영향을 상쇄할 목적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투입(50~100bp 기준율 + 10~20bp 금리 인하)할 것이라 전했다. 연준과 ECB의 대차대조표 합보다 큰 PBOC의 유동성 투입은 글로벌 유동성 지수의 상승이자 당분간 비트코인 주도의 상승을 의미한다. 과거 가격과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구간에서는 금이 소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금 가격이 비관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단지 지금은 비트코인으로의 자금 이탈을 경계해야 하는 때이다.

바쁘다 바빠 패권 경쟁 사회

미국과 주요 국가 간 무역협약 내용, S&P PMI

이번 주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4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중 갈등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 정책 및 성장 경로 불확실성이 여전한 탓에 달러 인덱스는 2022년 이후 처음으로 99pt에 진입했다. 파월 연준의장 역시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며 미국 자산 투자심리는 빠르게 반등하지 못한 모습이다. 다음 주도 미국-중국 간 무역 갈등이 추가로 부각되는지가 금융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무역협상에 있어 공은 중국에 있다고 언급한 한편, 시진핑 주석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반미전선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첫 관세 협의 이후, 일본은 조기에 합의하겠다는 의견이 일치했으며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아직 미-일 간 입장 차이가 남아있어 이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할 것임을 밝혔으며, 환율 관련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초반에 진행한 국가인 만큼 협상을 앞둔 여타 국가들에 자침이 될 공산이 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추가로 발표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한국과의 협의를 앞두고 조선업 협력, LNG 수입,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사업 등 여러 협상카드가 언급된 바 있다. 관세율 인하 및 비관세 장벽 항목 제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을지가 원화가치 및 국내자산 투자심리에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주요국 4월 S&P PMI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주 미 소매판매에서도 확인되었듯, 관세를 앞둔 선수요에 제조업 생산 및 고용이 우려보다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을 수 있다. 단기적인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는 시장도 어느정도 인지한 만큼, 앞으로 고용 및 투자에 대한 계획이나 수요에 대한 기대가 어떤지 분위기를 확인하는 게 우선인 시점이다.

다음 주 주목할 매크로 지표 및 이벤트

일자	국가	지표 프리뷰	예상치	이전치
4/18	일본	3월 헤드라인/근원 CPI YoY	3.7/3.2	3.7/3.0
4/21	중국	4월 PBoC 금리결정	-	-
	한국	4월 소비자신뢰지수	-	93.4
	유럽	4월 S&P 제조업/서비스업 PMI	47.5/50.2	48.6/51.0
4/23		4월 S&P 제조업/서비스업 PMI	-/-	50.2/54.4
	미국	3월 신규주택 판매 MoM	1.0	1.8
4/24		4월 베이지북	-	-
	한국	1분기 GDP QoQ/YoY	0.1/0.5	0.1/1.2
	미국	3월 내구재 수주 MoM	1.5	1.0
4/25		3월 기준주택 판매 MoM	-3.1	4.2
	일본	4월 도쿄 헤드라인/근원 CPI YoY	3.5/3.2	2.9/2.4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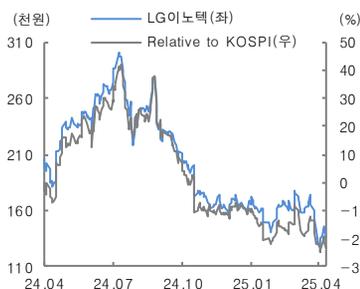
LG이노텍 (01107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60,000**
유지
현재주가 **137,800**
(25.04.17)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2470.41
시가총액	3,26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5%
자본금(보통주)	11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02,000원 / 122,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93억원
외국인지분율	22.90%
주요주주	LG전자 외 1 인 40.79% 국민연금공단 8.4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3.3	-13.0	-30.8	-25.1
상대수익률	-8.4	-11.1	-26.9	-21.7



저평가 심화 속에 신성장(FC BGA) 확대 추진

- 밸류에이션 저평가 심화,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중 확대
- 2025년 1Q 매출(4,55조원)과 영업이익(1,239억원)은 컨센서스 상회 예상
- 신성장인 FC BGA 매출 확대의 첫 해, 유리기판 사업은 적극적 추진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260,000원 유지

투자의견은 매수(BUY) 및 목표주가 260,000원(2025년 주당순이익 X 목표 P/E 12.5배 적용) 유지. 미국이 스마트폰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면제하였으나 중국에 펜타닐 관세(20%) 유지, 반도체에 품목 관세 부과 가능성이 상존. 애플이 부품 업체에 가격 인상의 일부를 전가할 우려도 예상. 그러나 현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저평가에 초점, 중장기 관점에서 비중확대 판단. 투자포인트는

1) 역사적 밸류에이션의 하단(2025년 P/E 6.9배, P/B 0.6배), 주가의 하방경직성을 예상. 스마트폰이 상호관세에서 제외,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동시에 애플의 인도 생산 비중 확대도 긍정적으로 해석. 또한 반도체에 품목 관세가 부담이나 관세 정책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

1Q25 매출(4,55조원)과 영업이익(1,239억원)은 컨센서스 상회 추정

2) 2025년 1Q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55조원(-31.3% qoq/+5% yoy), 1,239억원(-50% qoq/-29.6% yoy) 추정. 영업이익은 컨센서스(1,050억원)을 상회 예상. 광학솔루션 매출은 3,72조원으로 5.9%(yoy) 증가, 아이폰 16 프로/프로 맥스의 양호한 판매 속에 아이폰16e 생산으로 영업이익률이 개선 전망

3) 2025년 영업이익은 7,328억원으로 3.8%(yoy) 증가 추정. 역성장의 우려에서 벗어날 전망. 애플의 아이폰 판매 증가보다 평균공급단가(ASP) 상승, 프로 및 프로 맥스 등 고가 비중 확대, 믹스 효과로 영업이익률 확대가 중요. 아이폰 17에서 평균공급단가 상승은 전면 카메라의 화소 수가 4개 모델에서 모두 24M로 상향 / 후면의 망원 카메라가 48M로 상향을 예상. 프리미엄 영역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LG이노텍이 수혜 예상. 2026년 베트남 생산 비중 확대, 전체 감가상각비의 축소로 영업이익 증가를 전망

2025년 FC BGA 및 유리기판 사업 확대의 첫 해

4) 2025년 FC BGA 성장 확대에 주목. 차세대 성장 제품인 FC BGA 매출이 증가, 인텔내 고부가 제품을 하반기에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 칩셋 중심에서 CPU/ AI 반도체향으로 FC BGA 공급을 기대. FC BGA 사업을 2022년 시작 이후 2025년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예상. 경쟁사대비 매출 규모는 미미하나 성장이 높은 동시에 LG이노텍의 반도체 패키지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반영하면 2026년 큰 폭의 매출 증가를 전망. 장기적으로 FC BGA 경쟁력 확대 차원에서 유리기판의 개발 추진, 최근 초기 생산을 위한 장비 발주도 진행

(단위: 십억원 %)

구분	1Q24	4Q24	1Q25(F)		2Q25					
			작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4,334	6,627	4,493	4,551	5.0	-31.3	4,444	4,643	1.9	2.0
영업이익	176	248	132	124	-29.6	-50.0	105	63	-58.4	-49.1
순이익	138	107	81	75	-45.9	-29.9	70	32	-68.0	-57.7

자료: LG이노텍,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